

##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양성교육 변천 과정 분석 -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전문직업주의화 요소를 중심으로\*

최정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46년부터 현재까지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양성교육 변천 과정에서 시기별 교육 중점과 교육내용을 식별하고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전문직업주의화 요소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육군의 기간(基幹)이 되는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양성과정을 전문직업주의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육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양성교육 변천 과정은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 전문직업주의화 도입기(1946~1950)로 전문직업주의화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육군의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의 발발로 이러한 노력이 중단됨으로써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둘째, 전문직업주의화 태동기(1951~1960)로 6·25전쟁 중에 정규 4년제 육군사관학교로 재개교함으로써 비로소 전문직업주의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비록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나, 초급지휘관으로서 군사전문성과 군의 간성으로서 역량을 갖추 수 있는 양성교육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전문직업주의화 발전기(1961~1980)로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과 베트남전쟁 참전 등으로 육사 졸업생들은 실전에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이들의 경험 요소들은 육사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육사 졸업생들이 보여준 희생정신과 위국헌신은 사관생도들의 국가관, 사생관 확립에 귀감이 되었다. 넷째, 전문직업주의화 정착기(1981~현재)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교육과목을 신설하고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이처럼 육군사관학교의 양성 교육과정은 단순히 장교양성에서 벗어나 점차 전문직업주의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변천해 왔다.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군·공군사관학교의 양성교육 체계와

\* 논문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E-mail: choijj4801@hanmail.net)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군 사관학교의 양성교육이 전문직업주의화에 미친 영향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전문직업주의화, 육군사관학교, 미국 육군사관학교, 6·25전쟁, 베트남전쟁

## I. 서 론

군의 존립 목적은 전쟁 발발 시 승리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해 평시부터 군사력을 건설하고 부단한 교육훈련을 통해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숙달하고 있다. 군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장교단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즉, 장교는 전투를 지휘하고 정책 및 계획수립, 교육훈련 및 부대관리, 장비의 전술적 운용 등 군을 움직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장교의 질적 수준은 군의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무력의 행사를 통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군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반이 된다(김인국·최광표 2012, 1-2).

국군 병영생활 규정에 장교의 책무를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의 도야와 심신의 수련에 힘쓸 것이며, 처사를 공명정대히 하고, 법률을 준수하며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로 규정(국방부 1998)하고 있다. 이것은 장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책임, 역할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의 장교 양성교육 기관은 1945년 해방 이후 미 군정기 군사영어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육군사관학교, 육군 제3사관학교, 학생중앙군사학교(육군 학생군사학교)로 정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육군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교육내용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방위를 위한 호국간성과 군사전문가 육성'이라는 목표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군은 2차례에 걸쳐 정치에 개입(5·16군사정변, 12·12군사반란)함으로써 30여 년간 군부 권위주의 정부를 수립하였다(한용원 1993, 15-25).

군은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깨고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민군관계에서 민보다 군이 우위를 점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일은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행해졌다. 그동안 육군사관학교는 육군의 고급장교와 우리 군의 지휘부(국방부 장관·차관, 합동참모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를 배출하는 주 통로가 되어 왔다.<sup>1)</sup> 이처럼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육군과 우리 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성 교육과정에서부터 문민 우위, 군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직업주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사관학교에서 양성교육 과정은 장교가 되기 위한 4년간 수련의 기간으로 장교로서 국가관, 사생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임관 이후의 군 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다.

육군의 장교 양성교육 및 전문직업주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이 있다. 첫째, 현재 육군의 장교 양성 교육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분석한 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노진철 2017; 조영진 2003). 둘째, 장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생적 요인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김인국·최광표 2012, 1-8). 셋째, 군과 민간 학계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간부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계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백종천 1981; 양혜정 1994). 넷째, 한국 군부의 군사정권 수립과정을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구직업주의와 스테판(Alfred Stepan)의 신직업주의의 충돌로 분석하였다(김준봉 1998; 양병기 1996).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군의 간성인 육군사관생도의 양성교육 과정과 교육내용보다는 육군 전체의 장교 양성교육 제도의 문제점에 중점을 두어 분석을 하였다. 또한 신·구 직업주의에 대한 갈등과 2차례에 걸친 군의 정치개입 원인을 신직업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관학교의 양성교육은 군내 다른 신분이나 교육기관에 비해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며, 이러한 과정을 마치고 임관한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군사전문가로서 자질, 품성 그리고 리더십이 다른 출신들에 비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경우 대부분 장기 복무를 통해 군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므로 직업군인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사관학교 양성교육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양성교육 변천 과정에서 시기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홈페이지상의 자료를 토대로 볼 때, 2022년 현재 육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 33명 중 25명, 국방부 차관 19명 중 17명, 합참의장 38명 중 22명,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30명 중 29명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육군사관학교 다음으로는 군사영어학교 출신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별 교육 중점과 교육내용을 식별하고 새뮤얼 헌팅턴의 전문직업주의화 요소를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필자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육군의 기간이 되는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양성과정을 전문직업주의화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육군사관학교 양성교육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육군본부, 육군사관학교에서 발간한 공간사와 육군사관학교 양성과정과 관련한 연구서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군의 전문직업주의화에 대한 논의와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육군사관학교의 교육과정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 II. 군의 전문직업주의화에 대한 논의와 분석의 틀

군인은 국가의 명령으로 전쟁 수행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인간으로 양성될 때, 즉 훈련과 무장, 전투명령을 통해 다른 나머지 남자들과 확연히 구분될 때 그런 사람들을 좁은 의미로 지칭하는 말이다(볼프 슈나이더 2015). 이렇듯 군인은 민간인과 확연히 구분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교육을 필요로 한다. 군의 교육훈련은 학교교육과 부대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은 군사교육과 전문교육으로 세분할 수 있다. 군사교육은 민간인에서 군인 신분으로 전환에 필요한 양성교육과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임관한 이후 현 직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부여하고 상위 직무 수행을 위한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 있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국방부 1997b).

군사교육의 목적은 현재 조직 성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다 발전시키고 군이 필요로 하는 추가 능력, 즉 새로운 능력을 계발하여 군이 요구하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또한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자기 계발 능력, 사회생활 능력 및 독립생활 능력을 향상시켜 자아실현 의지를 고양한다. 군사교육은 군사 조직관리, 인사관리 또는 자원관리 등과 같은 군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발전을 돕고자 존재하며 이러한 수단의 능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식 및 기술 폭발 현상에 비추어 중심교육과 주변 교육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교육제도

의 활용이 요구되며, 군조직 환경의 급변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의 부단한 개편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 소요에 의한 질적, 양적, 교육 수요의 증족과 교육의 자질이 고려된 군사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민간인과 장교단을 구분해 주는 기능은 '무력의 관리(management of violence)'에 있다. 군사력은 무력을 사용하여 전쟁을 성공시키는 것에 있으며, 장교단의 임무는 첫째, 부대의 편성, 장비 및 훈련, 둘째, 군사 활동의 계획, 셋째, 작전지휘가 포함된다. 그리고 장교 특유의 기능은 그의 주기능이 무력을 적용하는 인간조직을 지휘, 운용 및 통제하는 것에 있다(새뮤얼 헌팅턴 1987, 12). 따라서 군의 전문가란 어떤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무력의 사용을 지휘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장교를 말한다. 무력의 관리는 단순히 현존기술을 배움으로써 정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현대의 장교단은 과거의 전사(戰士) 집단과 확연히 구별된다. 즉 장교단은 사회적 전통, 신분 및 지위보다는 교육과 기술에 근거하여 선발되며, 단체의식은 사회적 신분의 유사성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교육과 직업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 아울러 군전문직업주의화는 오늘날까지 전략과 정치의 중복영역 증가와 보조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현대의 장교단은 복잡한 정치-전략적 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Janowitz 1960).

일반 직업과는 달리 장교단은 성공적인 활용과 진급을 위한 경력을 관리하고, 군대라고 하는 국가 제도를 유지하며, 전문직업의 가치와 전문지식을 개발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갖게 된다(Study Group for the Review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Officers 1978). 하나의 제도로서 군은 장교단에게 일반 시민사회의 직업인과는 다른 독특한 위의 3가지 책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 시민사회의 직업과는 다른 교육 훈련제도 즉 순수한 군사적인 것과 일반 사회적인 것을 효과적으로 조정 통합한 교육훈련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장교단을 위한 교육은 본질적으로 대립하는 사항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장교단에게 시민사회의 자유, 평등, 개인성, 비판 등의 가치도 교육하여 과거의 경험이 직접 적용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장교단을 육성해야 한다. 이처럼 장교단의 교육은 행위의 규범과 가치관의 대립을 조화시키고 자유주의적 가치와 군사적 가치가 복합된 것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교단이 자신의 업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업무와 연관된 다른 분야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장교는 막중한 책임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 훈

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군 간부의 교육훈련은 직업주의를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이다. 군사전문직업(military profession)이란 군대의 직업집단(military occupation group) 중에서도 가장 직업화된 집단인 장교단을 의미한다. 군사 전문직은 사회 전문직의 특성인 집단의식과 윤리 및 규율을 기반으로 하는 점은 같지만 군사적 전문성(expertise), 사회적 책임성(responsibility) 그리고 단체성(corporateness)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새뮤얼 헌팅턴 1987, 8-11). 간부의 군사적 전문성은 전투를 지휘하고 병력, 장비, 시설, 예산,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성은 무력을 관장하는 직업으로서 군의 사명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에 대한 군사 안보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단체성은 엄격한 계급과 직책의 위계질서 속에서 군이라는 집단에 대해 단체원으로서 무한대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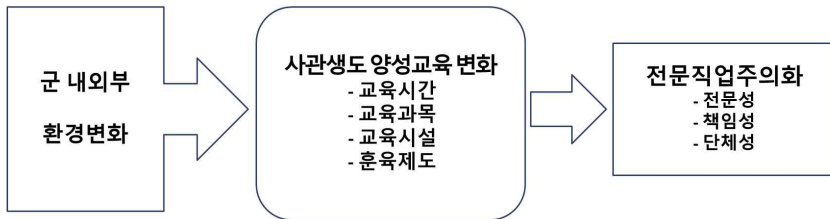
다른 직업과 비교해 볼 때 군사 전문직업은 훨씬 더 관료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이며 경력주의(careerism)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합법적이고 권위적으로 규정된 구조와 위계질서를 갖춘 관료집단이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제한의 봉사를 약속하며 이러한 헌신적 업무수행을 위해 강인한 훈련을 하는 유일한 공공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Moskos, ed. 1971). 전문직업주의화(professionalization)란 군이 전문직의 방향으로 중요한 특성들을 변화시켜 가는 역동적 과정을 의미한다(김상호 2006, 6).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양성교육의 전문직업주의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교육과정의 변천은 군내·외부적 환경 변화 요인을 변인으로 하여 그것이 교육 기간, 교육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시기인 전문직업주의화 도입기(1946~1950), 전문직업주의화 태동기(1951~1960), 전문직업주의화 발전기(1961~1980), 전문직업주의화 정착기(1981~현재)로 구분하였다. 첫째, 전문직업주의화 도입기(1946~1950)는 해방 이후 미군정에서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하여 장차 건군의 기간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며, 이를 모체로 국방경비사관학교가 창설되었다가 정부수립 이후 육군사관학교로 개칭되었다. 이 시기에는 교육시설, 교육 기간, 교육내용 등에서 체계가 수립되지 못한 상태였고, 6·25전쟁이 발발하여 폐교되었다. 둘째, 전문직업주의화 태동기(1951~1960)는 6·25전쟁 중 경남 진해에서 4년제 사관학교로 재개교한 이후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현 위치인 태릉으로 복귀하였다. 복귀 이후 교과과정에 관한 법령 및 학칙 조항 개정, 교육시설 보강이 이루어졌다. 셋째, 전문직업주의화 발전기(1961~1980)는 육군사관학교의 장교

양성 교육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였다. 그동안 육사 교육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던 미군사고문단이 육사에서 철수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도발과 베트남전 참전 경험을 반영한 비정규전과 관련된 교육과목과 훈련이 도입되었다. 넷째, 전문직업주의화 정착기(1981~현재)는 다양한 안보 위협과 시대의 조류를 반영한 군사교육이 실시되었고, 초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군사적 지식과 리더십 배양에 중점을 둔 교육이 이뤄졌다.

시기별 다양한 요인들이 육사 사관생도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외부요인은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의 전란과 사관학교 교육 관련 법령 정비, 안보 환경 변화 등이었고, 내부요인으로는 육군의 병력증강, 교육시설 개선, 훈육제도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복합요인에 의해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양성교육은 점차 전문직업주의화를 향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의 틀



### Ⅲ. 육군사관학교 양성교육의 변천과 전문직업주의화 과정

#### 1. 전문직업주의화 도입기(1946~1950)

##### 1) 내외부 환경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세계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 간의 대결 양상이 전개되었다. 일본의 패망에 따라 한반도는 독립이 되었으나 남한과 북한에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분단이 되었다.

남한에서는 미 군정기 동안 국방사령부(통위부), 국방경비대(조선경비대)를 비롯한 국방기구가 창설되었고, 미군사고문단(KMAG: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의 지원으로 한국군을 교육하기 위한 병과학교가 설치되어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1948년 9월 1일에는 조선경비대가 국군으로 편입되었고 명칭도 9월 5일부로 육군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과 같은 해 12월 7일 「국방부직제」(대통령령 제37호)가 제정 공포됨으로써 1948년 12월 15일부터 통위부가 국방부로, 조선경비대가 대한민국 육군으로 정식 편입, 법제화되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a, 64-100). 육군은 「국군조직법」 공포 이후 부대 증편에 박차를 가하여 6·25전쟁 이전에 8개 사단, 22개 연대와 1개 기갑연대로 급성장하였으며, 각 병과 부대 및 학교를 증·창설하였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a, 122). 그러나 주한미군은 1949년 6월 30일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기고 철수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 공백을 초래하였다.

## 2) 교육과정과 내용

광복 이후 미 군정기 교육훈련은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의 군사교육을 모방하였고 육군의 교육훈련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중앙통제 없이 각도별 미군사고문단의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되었다. 미군정청은 1945년 12월 1일 한국군의 기간 요원 양성 및 군사교육 훈련의 수단으로 군사영어학교(Military Language School)를 설치하였다(국방군사연구소 1998, 28-29). 초창기에 미군정청의 관심은 크지 않았으며 학교 교육시설과 훈련 교보재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것은 주한미군 지휘관들이 일선 부대가 아닌 학교에 세심하게 관심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수가 결정되자 미군정청은 한국군에 대한 훈련지도 및 감독의 목적으로 주한미군사고문단을 결성하고 교육기관에 관한 관심을 본격화하였다(육군사관학교 2016b, 7).

군사영어학교의 구성원은 광복군, 일본군, 만주군 등지에서 장교 생활을 경험한 군 경력자들이 다수였다. 교육과정은 미국식 군 내무 생활교육에 따라 단순한 병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군사영어를 주로 가르치고, 그 외에 한국 역사, 참모학, 자동차 교육, 소총 분해 등 기본적인 군사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였다(육군사관학교 1978, 66). 군사영어학교는 미 군정하에서 군사영어를 가르쳐 우선 군사 통역관을 양성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었다(육군본부 1980, 306). 그러나 군사영어학교는 1946년 4월 30일 1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되었다.



군사영어학교가 폐교된 이후 이를 대체로 ‘국방경비사관학교’가 창설(1946.5.1)되었다. 경비사관학교의 1기 후보생들이 모두 중국, 일본군에서 고급부사관급 이상의 군 복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45일간의 단기 교육을 마친 후 임관시켜 배출하였다. 그러나 2기생은 80일, 3기생부터는 3개월로 하고 교과 내용도 일본식 군사교육에서 미국식 교육으로 전환되었으며, 학술, 병기, 전술 과목 등 간부로서의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교육하였다. 교육 시간은 학술학(100시간)<sup>2)</sup>, 병기학(150시간), 전술학(278시간) 등 총 528시간을 교육하였다(국방부 1984, 213).

교육 기간이 기수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은 군 경력자, 순수 민간인 등 모집 인원의 군사 경험과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른 초급장교 수요가 영향을 미쳤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군 창설 초기 단기간에 군이 급속하게 팽창함에 따라 장교의 수가 급증한 데다 군 경험 보유자 중 다수가 아직 군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이들을 군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 제주도과 지리산 일대의 공비 토벌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장교의 수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경비사관학교 교육은 일본군, 만주군 방식이 혼합되어 있었으며 제식훈련을 미국식으로 통일하고, 미국식 부대편성과 운영, 분·소대 기본전술, 그리고 99식 및 38식 일본 소총 기계훈련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 미군으로부터 원조받은 M1 소총 훈련, 기관총·박격포 등 공용화기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독자적인 교재도 없어 미군의 교범을 번역하여 활용하였다(육군사관학교 1996, 70-75; 장창국 1984, 134-136).

경비사관학교는 1946년 6월 16일 국방경비대가 조선경비대로 개칭됨에 따라 조선경비사관학교로 개칭되어 경비대 기간 장교의 보충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경비사관학교는 1948년 9월 1일 조선경비대가 대한민국 국군으로 편입되면서 육군사관학교로 개칭될 때까지 제1기에서 6기생까지 1,237명의 장교를 배출하였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a, 70).

경비사관학교의 교육과목은 제식교련, 개인화기 취급 등 군사훈련에 주력했으나, 육군사관학교로 개칭된 이후 8기생부터 국사, 영어, 일반학 등이 포함되고 지휘법, 행정학 등 장교가 갖추어야 할 교양 기초과목도 신설했다. 특히 축구, 농구, 배구, 야구, 권투, 도수체조 등 체육 과목도 포함해 강인한 체력과 교양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육군사관학교 1996, 86-89).

2) 학술학은 정신훈화(4), 군대지휘(4), 군대예절(8), 군제학(4), 교육법(4), 군대위생(4), 사격학(8), 독도법(8), 행정(4), 재정학(4), 보급학(4), 군법(4), 참모전술(8), 공격방어(8), 포병(8), 상황판단(8), 작전일반명령(8) 등으로 구성되었다.

육군사관학교 제1기부터 제9기까지의 교육과정은 창군 초기 시급한 장교양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 기간이 45일에서 6개월까지 단기과정이 불가피하였다. 비록 교육 기간이 짧았다고 할지라도 지원자들 다수가 군 경험을 가진 자들이어서 장교로서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학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단기 교육과정으로 장교의 정예화, 나아가서는 군의 정예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여론에 따라 정규사관생도 제1기생(10기) 교육은 최초 2년으로 하였다가 준비 부족으로 1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선배 기수들과 비교하면 교육 기간이 2배 이상이나 되었으므로 교육과정이 짜임새가 있었다. 오전에는 국어, 국사, 외국어(영어·러시아어), 수학, 논리학 등 일반학 강의가 서울공대 등에서 초빙된 저명한 외래강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오후에는 화기학, 전술학 등 군사학 강의를 있었다. 그밖에 제식훈련, 자동차 운전 연습, 지휘통솔법, 체육 등 매우 다양한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졌다(장창국 1984, 330). 생도 9기까지는 일본식, 중국식, 미국식 등이 혼합되어 잡다했던 군사학 교육내용도 거의 미국식 교리로 통일되어 군사교육은 이때부터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10기생부터 내무반 생활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3) 평가

이 시기에는 전문직업주의화를 위한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 있음에도 육군의 정규사관학교로서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의 발발로 이러한 노력이 중단됨으로써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 (1) 군사전문성

국방경비사관학교의 목적은 한국군 창설에 대비한 기간 요원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초기 구성원은 일본군, 중국군, 광복군 출신 등의 군사 경력자들로 교육 기간은 대부분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속성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 방식도 일본군 식과 미국군 식이 혼합되는 등 체계가 완전하게 정립되지 못하였고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교재, 교관 편성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6·25전쟁의 발발로 육군사관학교가 폐교됨으로써 장교 양성교육은 단절되고 말았다. 따라서 초창기 육군사관학교의 교육은 군사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기에는 시간과 시설, 그리고 지원체계 측면에서 모든 것이 미흡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생도들의 강한 의지와 자부심을 근간으로 제식훈련, 전술훈

런, 개인화기, 공용화기 교육을 통해 장교로서 갖춰야 할 군사 지식을 습득하고 숙달하였다. 그러나 창군 초기 시급했던 간부 양성의 필요성으로 단기간의 교육이 불가피했으며, 생도 대부분이 과거 군사 경력자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군사교육기관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 (2) 책임성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지속해서 무력도발을 자행하였다. 또한 좌익계 사설 군사단체에서 활동하던 대원들이 잠입하여 군내에 공산당 세포망을 조직하거나 폭동과 반란을 책동하여 군의 적화를 피하기도 하였다(육군본부 1989, 47). 사관학교 내부에서도 좌익 성향을 가진 장교와 교관들에 의해 포섭된 후보생들이 임관 이후 대대급월북 사건(강태무, 표무원 대대)과 여수·순천 10·19사건, 제주4·3사건 등에 직접 주동자로 가담하기도 하여 이후 군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숙군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1기생에서 10기생은 6·25전쟁 시 소대장에서부터 사단장으로 참전하여 총입관자의 30%에 해당하는 1,500여 명의 희생자를 넘으로써 국가를 수호하는 임무를 완수하였다(육군사관학교 1996, 50-53). 특히,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생도 1, 2기생은 사관생도 신분으로 빈약한 무기와 장비에도 불구하고 애국충정과 군인정신만을 갖고 전투와 유격전에 참전하여 용전분투함으로써 본보기가 되었다.

## (3) 단체성

광복과 정부수립 등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에서 사회의 혼란상은 육사 양성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출신 성분이 다양하고 교육 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생도들 간의 갈등이 심하였는데, 학병 출신과 지원병 출신 간의 대립이 심하였다. 또한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의 분열 책동으로 생도 간의 융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밖에도 일본군 및 만주군 장교로서 군 경력을 가진 자들은 전근대적인 일본군대식의 악습을 답습하여 강압적인 통솔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올바른 지휘통솔법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창군 초기 다양한 출신들로 구성된 장교 후보생들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한 명확한 목표와 비전이 제시되지 못해 서로 다른 출신 간의 주도권 다툼과 갈등이 빈번했기 때문이었다. 즉, 창군 당시에 있어서 정신적 요인이 가장 중요했으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군대의 이념을 제시하는 데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교육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육군사관학교 1996, 53-54). 이것은 창군 이후 부대 창설을 위한 장교 육성에 급급했

었던 양성교육 환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2. 전문직업주의화 태동기(1951~1960)

### 1) 내외부 환경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초기에 UN은 안보리 결의를 통해 유엔군을 결성하여 파병하였다. 6·25전쟁이 끝난 이후 미군의 감축과 함께 육군의 대폭적인 병력증강이 이루어졌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육군은 8개 보병사단 규모로 무기 및 장비편성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전투력 발휘 면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 1954년 말에 이르러 20개 사단으로 증강되었고, 편성 장비 또한 전쟁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b, 200-207). 육군은 병력이 증강됨에 따라 제1야전군(1953.12), 제2군(1954.10.)을 창설하는 등 새로운 지휘기구를 편성하였다.

1954년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의정서」에 따라 국군의 규모는 72만 명이었으나 1957년도에 이르러 미국 정부로부터 약 10만 명을 삭감하는 안이 제기되었고 양국은 협상을 통해 1959년도에 9만 명을 삭감한 63만 명으로 합의하였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a, 315-319). 미국의 대외원조는 동맹군의 장비현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어 육군의 군사원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주한 미 보병사단과 그 지원부대들은 1957년부터 새로운 5각(角) 편제 개편이 이루어졌고 신편 된 사단은 전술핵무기의 투발(投發) 수단을 갖추어 화력 면에서 획기적인 증강(국방부 1987, 9-50)이 이루어졌다.<sup>3)</sup>

### 2) 교육과정과 내용

창군 초기 급급히 필요했던 간부들을 일시에 양성해야 했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의 생도양성 교육 기간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기 교육만으로는 현대군대를 이끌 충분한 자질을 갖춘 장교를 만들어 낼 수 없었다. 6·25전쟁 수행으로 병력과 장비, 물자가 전쟁 이전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

3) 주한미군의 개편과 증강은 휴전협정이 제약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1957년 6월 21일 제 75차 군사 정전회담에서 북한이 휴전협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군비증강에 대한 유엔군측의 단호한 결의표시와 더불어 휴전협정 제13 D항을 폐기 선언함으로써 실현되었다.

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6·25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규과정의 육군사관학교를 1951년 10월 30일 경남 진해에서 서둘러 재건하게 되었다.

4년제 정규사관학교로 재개교한 육군사관학교가 초기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미 8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은 많은 영향을 미쳤다(육군본부 2001, 430-431).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 육사의 재개교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미육사를 졸업한 장교 6명, 미 육사의 교육프로그램, 편성 그리고 교재를 지원해 줄 것을 미 육군성에 요청하였다(육군사관학교 2016b, 48-50). 주한미군사고문단은 4~5명의 고문관을 파견하여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등에 많은 의견과 조언을 제시하였다(육군사관학교 2016b, 98-110). 또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육사의 교육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미 육사로부터 많은 제도와 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하려고 노력하였다(육군사관학교 2016b, 48-50). 한국 육군사관학교 교장 안춘생은 미 육사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지원을 요청하였다(남정옥 2015, 127-131; 육군사관학교 2016b, 131-136).

정규과정으로서 재개교를 하게 된 육사는 현대적 사관학교로서 체계적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전통과 이념을 바탕으로 지휘 및 통솔능력, 현대전술 및 전기의 습득, 강건한 체력단련에 추가하여 대학 수준의 학문을 교육하기에 이르렀다.

육군사관학교가 재개교한 후 1952년 1월 제11기생들이 입교하였다. 전시의 교육환경은 시설, 교보재, 도서관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였으며 뚜렷하게 학칙상에 명시된 교육목표나 이념, 교육방침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육군 초급장교로서 요구되는 기초군사훈련, 지휘통솔 능력 배양, 군인에게 요구되는 체력의 구비를 위하여 고도의 체련(體鍊) 실시라는 목표하에 교육이 이루어졌다(육군사관학교 1996, 167-176). 이 당시 육사에 파견된 군사고문단이 수립한 육사 생도의 군사훈련 프로그램과 교육 시간을 보면 군사훈련 교육 시간은 1학년은 466시간(일반학기 192, 하기 군사훈련 274), 2학년은 314시간(일반학기 109, 하기 군사훈련 205), 3학년은 425시간(일반학기 145, 하기 군사훈련 280), 4학년은 526시간(일반학기 166, 하기 군사훈련 360) 등으로 구성되었다(육군사관학교 2016b, 140-143).

6·25전쟁 휴전 이후 1954년 6월 육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에서 경기도 양주군 태릉으로 복귀하였다. 이 시기에는 사관학교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법률 제374호(1955.10.1)로 공포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4년 교육을 이수한 육사 11기생부터 이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학사일정도 기존 9월 1일을 학기 초로 설정하여 생도교육을 진행하였으나 1959년부터는 3월 1일로 앞당겨서

시행하였다. 그동안 미국의 교육 일정을 그대로 모방하던 것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었다.

태릉으로 복귀 후 육사의 교과과정은 학과의 증편을 통하여 전술, 전기 등의 군사학 교육과 더불어 이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4년제 대학과 같은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수업 및 실습 시간의 조정을 통해 더 내실 있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군이 당면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장차 유능한 고급지휘관이 될 수 있는 교양과 소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사학, 지휘심리학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장차 유능한 군의 간성이 될 수 있는 지적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4년 동안 400시간 이상의 전술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였다(육군사관학교 1996, 205).

육사의 일반학 과정이 정규 4년제 대학 과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듯이, 군사학 과정도 교육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육사 4년간 총 4,596시간의 교육훈련 시간 중 군사학은 약 36%인 1,634시간을 차지하였는데, 군사학과 체육교육 시간이 각각 8 대 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군사학은 저학년에서는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적인 전술과 제식동작의 완성을 목표로 하였다. 고학년에서는 초급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육군의 중요 병과의 중대급까지 전술과 대대급에 관한 운영 개요를 습득하도록 하였는데 군사학교육은 하기 군사훈련 시에 집중적으로 숙달하였다. 이 밖에도 장차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았다. 기간중 육사 생도들의 군사학 교육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전문직업주의 태동기 군사학교육

연도	목표	주요 내용
1952~1960	• 초급지휘관으로서의 기본 군사학 습득	• 중대전술 완성 • 4학년: 하계훈련 시 견습소대장 근무 • 1·2학년: 교관실습, 전방실습 3주

\* 출처: 육군사관학교 1996, 591

전인적(全人的)인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생도훈육을 위한 제도는 그동안 미국 육사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모방해 오다가 생도훈육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육군사관학교 1996, 214). 이에 따라 생도들의 도덕적 명예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관생도 신조」와 「도덕율」을 제정하였다. 이후 이들은 사관생도들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 3) 평가

6·25전쟁 시기 정규 육군사관학교가 재개교함으로써 비로소 전문직업주의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비록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나, 초급지휘관으로서 군사 전문성과 군의 간성으로서 역량을 갖춘 사관학교 교육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 (1) 군사전문성

육군사관학교는 창군 초기의 시급히 필요했던 간부를 일시에 양성해야 했던 관계로 학교 교육 기간은 단기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단기 교육만으로는 현대군대를 이끌 충분한 자질을 갖춘 장교를 만들어 낼 수 없었다. 6·25전쟁 수행으로 병력과 장비, 물자가 전쟁 이전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쟁 중에도 정규과정의 육군사관학교를 서둘러 재건하게 되었다.

정규과정으로서 재개교를 하게 된 육사는 현대적 사관학교로서 체계적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전통과 이념을 바탕으로 지휘 및 통솔능력, 현대전술 및 전기의 습득, 강건한 체력단련에 추가하여 대학 수준의 학문을 교육하기에 이르렀다.

#### (2) 책임성

창군과 6·25전쟁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사관생도 양성과정을 운용할 수 없었던 육사는 재개교를 통해 비로소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사명을 인식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육사는 그동안 단기간에 대량의 장교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규사관생도를 양성하는 주기관으로서 사명을 수립하고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육사는 “사관생도를 교육 훈련하여 초급장교로서의 지휘 능력 및 국가에 대한 충성심, 숭고한 국군 임무에 대한 책임감이 왕성한 정규 장교를 육성함에 있다”로 기본 사명을 정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첫째,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는 육군 정규 장교로서 지속적인 발전과 향상에 요구되는 자질을 생도에게 부여한다. 둘째, 의무 및 책임감, 지휘 및 통솔력, 충성심, 단결심 및 고결한 품격을 도야시킨다. 셋째, 광범위한 기초군사훈련의 습득과 현대 전술, 그리고 장차의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공군 운용 내용의 개요를 생도들에게 인

식시킨다. 넷째, 전술과 과학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을 하여 일반대학 졸업생에 버금가는 과학지식을 습득시킨다. 다섯째, 군의 정규 장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강건한 체질과 체력을 배양시킨다(육군사관학교 1996, 140). 이러한 사명을 토대로 교훈을 지(智)·인(仁)·용(勇)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육사의 교훈이자 교육이념이 되었다. 교훈은 개인의 수양 차원을 넘어 사회 공인으로서 행위지침을 시공을 초월하는 최고의 덕목이었다. 이에 따라 지·인·용은 육사 정신의 근간이 되었다(이동희 1982, 54). 이 밖에도 교가도 용진가에서 위국 충정을 재다짐할 수 있는 새로운 교가로 제정하였고 교기를 새로 제정하여 육사의 근본 사명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단체성

육사가 재개교된 시기는 전시 중이었기 때문에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초급장교의 내무생활과 군사훈련을 관장한 생도대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생도대의 생활은 생도 자치 근무로 이루어졌는데 각 학년 간에 구분이 엄격하였다. 이를 통해 상명하복의 정신과 강한 정신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또한 1952년부터 오늘날 '화랑의식'의 시초인 '분열식'을 실시함으로써 육군사관학교 생도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 3. 전문직업주의화 발전기(1961~1980)

### 1) 내외부 환경

1960년대는 냉전체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양 진영 간에 긴장이 고조된 시기였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미소 간의 데탕트가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쿠바미사일위기, 베트남전쟁 발발(1964) 등으로 국제적인 갈등이 지속되었다. 1960년대 한국의 국방정책은 반공을 제1국시로 하여 국토방위를 위한 전투태세 강화 및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한편 간접침략을 분쇄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두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 파병(1964.9.22), 1·21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1968.1.21) 등 북한군의 대남도발 증가,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피랍 사건(1968.1.23), 미 경찰기 피격(1969.4.15) 등이 발생하여 대내외 안보 환경은 다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조성되었다(국방부 1990, 23-57; 국방부 2002, 21-72).

1969년 미국의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과 1979년 미중수교, 중소분쟁은 새로운 안보 환경을 조성하였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을 자주국방 태



세를 확립하는 한편, 군사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총력 안보태세를 구축할 수 있는 국방력을 배양한다는 데 두었다.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라 정부는 한국군 현대화계획(1971~1975)을 수립하여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체계 운영 능력을 향상하고, 전력 증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미국 닉슨 행정부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에 따라 1971년 주한미군 제7사단이 철수하였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보강하고자 한미 혼성 제1군단을 편성하였다. 1970년대 중반 베트남의 공산화와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이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을 초래함에 따라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를 창설하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자주국방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장병 정신 무장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국군정신전력학교를 창설하여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국방부 2002, 102-103).

## 2) 교육과정과 내용

1960년대 들어 육군사관학교의 장교양성 교육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교훈을 개정하고 학교기구 및 교육시설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교과과정에 관한 법령 및 학칙 조항을 개정하고 교수요원의 확보와 교수 방법의 개선, 생도훈육의 새로운 방향 설정 등 내적인 면에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63년 5월 10일 그동안 육사 교육의 자문역할을 해왔던 미 군사고문단이 완전히 철수하자 육사는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교육을 토착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육군사관학교 2016a, 11).

1960년대 중반부터 육사의 성격과 시대적 사명이 뚜렷이 부각됨에 따라 군인에게 가장 주체적 국가 의식이나 조국애와 같은 육사의 교육이념을 충실히 집약하기 위하여 교훈을 개정하였다. 교훈은 기존 '지(智)·인(仁)·용(勇)'에서 '참되게 자라자'(신의), '배워서 이기자'(승리), '나라를 빛내자'(국가)로 이것은 참된 인생관, 필승의 군인관, 멸사봉공의 국가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육사의 교육과정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특히 군사학교육은 1960년대 후반 들어 교육내용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전술학, 화기학, 일반학, 병과학, 동기 내한 훈련 등이 주를 이루었다(육군본부 1966, 1296). 특히 야간전투 훈련의 강화와 3학년 유격 훈련과정 이수, 4학년 공수낙하훈련 등은 북한의 1·21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비롯한 빈번한 도발과 베트남전 참전, 향토예비군의 창설과 학생 군

사훈련 실시 등 군사 분야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1971년에는 야전 위생교육 및 극한지의 생존능력을 위한 동식물에 관한 환경적 지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환경학을 추가하여 공통 필수로 이수하게 하였다. 또한 전자계산기의 필요성이 모든 분야에서 증대됨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서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당시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일반학의 교육목표를 새로운 국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여 시행하였다(육군사관학교 1996, 293). 기간 중 육사 생도들의 군사학 교육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전문직업주의 발전기 군사학교육

연도	목표	주요 내용
1961~1967	• 초급지휘관으로서의 기본 군사학 습득	• 중대전술 완성 • 4학년: 하계훈련 시 견습소대장 근무 • 1·2학년: 교관실습, 전방실습 3주
1968~1978	• 지구력·인내력 함양과 지휘관 및 교관 능력 부여	• 재교간 초군반 이수(1968~1972) • 소대전투 완성(1968~) • 2학년: 1하사관학교 위탁(1971~) • 3학년: 유격훈련(1969~) • 4학년: 공수훈련(1970~)
1979~1980	• 기초 전기전술과 지휘관·교관 능력 구비 • 투철한 군인정신과 불굴의 투지력 함양	• 4학년: 졸업전 보완교육(1977~) • 3학년: 전방실습 2주(1979) • 분대전투 완성 및 소대전투 이해

\* 출처: 육군사관학교 1996, 591

특히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무형전투력 배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교육 체계의 확립에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의 교육 강조와 정신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종전의 국민윤리 이충무공 정신과 공산주의 비판 등의 과목을 통합하여 국민윤리(I~V)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육군사관학교 1996, 295). 정신교육은 학술적인 교육과 아울러 육사의 각종 시설물 명칭도 주체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종합교사는 충무관, 대강당은 을지강당, 체육관은 화랑체육관, 군사학 관은 홍무관, 해방촌 공원은 화랑공원 등으로 개명하였다. 이것은 사관생도들에게 희생적 애국심과 참다운 군인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애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게 하려는 목적에서였다(육군사관학교 1978, 372).

1960년대 들어 생도훈육에 있어서 특기할 사항은 사관생도 신조를 다음과 같

이 변경하였다. “하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둘,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소개 산다. 셋,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육군사관학교 1996, 328). 또한 생도대 훈육관도 4년제 육사 출신으로 전원 충원하여 생도 정신교육, 학습지도, 과외활동 지도, 생활지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교육시설 면에서 낡고 산재해 있던 교실을 종합교사(총무관, 양지관, 을지강당, 청현당, 익양관, 홍무관)를 건립하였으며,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제반 교육시설을 건립하였다.

### 3) 평가

1960~1970년대는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과 베트남전쟁 참전 등으로 육사 졸업생들은 실전에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이들의 경험 요소들은 육사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육사 졸업생들이 보여준 희생정신과 위국헌신은 사관생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사생관을 확립하는 데 귀감이 되었다.

#### (1) 군사전문성

베트남전쟁은 육사 출신 장교들의 4년간 육사 양성과정의 성가를 평가받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정규 4년제 육사 출신의 장교들은 초급 또는 중견 지휘관, 참모로서 실전을 체험하였다. 베트남전은 육사 출신 장교들의 군사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준 사례였다(이동희 1982, 55). 즉, 베트남전을 통해 육사 출신 장교들의 직업군인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주었다.

육사는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무력도발과 베트남전의 전투 교훈인 비정규전 관련 내용을 육사 교육과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전천후 작전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유격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것과 육사 25기까지 임관 이후 전원 전방 사단에 배치하던 것을 후방지역사단에도 배치하였다. 아울러 공수강하훈련 과목 신설을 통해 27기생부터 공수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반영하여 군사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 (2) 책임성

베트남 파병이 결정되자 다수의 육사 출신 장교들이 파병을 지원하였다. 최초

로 파병된 전투부대인 수도사단 제1연대의 소대장, 중대장, 연대 참모는 전원 육사 출신 장교들로 구성되었고, 기갑연대의 경우 14개 중대 중에서 12개 중대의 중대장이 육사 출신이었다(육군사관학교 1996, 361). 이렇듯 높은 지원율은 군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양성된 교육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파병을 앞두고 훈련 중 산화한 고(故) 강재구 소령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의 사례를 비롯하여 수많은 전투에서 보여준 육사 출신 장교들의 위국헌신 자세는 육사의 양성교육 과정이 실전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 (3) 단체성

베트남 파병 준비기간에 나타난 고(故) 강재구 소령의 헌신은 육사 정신의 실체와 모든 육사인이 견지해야 할 군인정신의 공통분모가 되도록 하였다. 육사에서는 고(故) 강재구 소령의 위국헌신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동상 건립, 교재 및 전기편찬, 영화제작 그리고 교과서 수록 등을 통해 육사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일체감을 조성하였다. 특히, 육사에서는 1966년부터 살신성인의 재구정신을 계승하고 충성심을 기르고자 ‘재구의식’을 시작하였고,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모범생도에게 ‘재구상’을 시상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또한 1952년부터 실시해오던 ‘분열식’은 1969년에 ‘특기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다가 1976년 ‘화랑의식’으로 개칭하여 시행하였다. 화랑의식에는 옛 신라의 화랑제도에서 뿌리를 찾고 화랑들의 구국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 4. 전문직업주의화 정착기(1981~현재)

### 1) 내외부 환경

1980년대 들어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 아래 대소(對蘇) 군사 우위 확보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미·소 군비경쟁은 소련의 경제침체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화해의 시대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냉전이 점차 완화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의 국력 신장에 따라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818 계획’의 추진으로 군 구조를 개선하여 합동군제의 지휘구조로 전환하였다. 또한 북한의 ‘한반도 무력 적화통일’이라는 대남 군사전략이 불변함에 따라 조기경보 태세를 완비하고, 화확전을 비롯한 전후방 동시 전장화에 대비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였다(국방부 2011, 81-85).

1990년 초 소련의 해체와 공산권 붕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는 안보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1991년 걸프전쟁(Gulf War), 1999년 코소보 분쟁 등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에 따라 주한미군 7,000여 명이 철수하였으며,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주한미군의 감축·철수계획은 유보되었다(국방부 1997a, 17-26).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 등으로 남북한 간 긴장이 지속되었으나 1994년 미북 간 기본합의문이 서명되어 북핵 위기는 잠정적인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추진되어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2000년대는 탈냉전 이후 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추가하여 테러, 사이버, 해적,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하였다. 북한의 6차레에 걸친 핵실험과 다수의 장거리 미사일실험으로 위협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 2) 교육과정과 내용

1980년대는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왔던 구(舊)교과과정을 수정하여 군 관련 분야에 중점을 둔 전공 과정을 부활하여 시행하였으며, 외국어 교육과 이공계 관련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생도들에게 ‘국적 있는 교육을 하여 민족적 주체성 및 건전한 윤리관 확립, 멸공 이념과 초전 필승의 투철한 군인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였다.

1990년대 들어 육군의 정예 장교양성에 목표를 두고 건전한 인격과 투철한 군인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강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어와 전산 교육의 강화, 지휘통솔요령 및 지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과정 개정안을 연구하여 시행하였다.

2000년대는 21세기에 들어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육사 교육의 목표와 임무를 재정립하여 일반학 교육, 혼육지도, 군사학교육, 체육·체력단련의 4개 분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다(육군사관학교 2006, 33-34). 이에 따라 생도들은 졸업 시 두 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했고, 졸업논문 또는 전공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또한 영어와 전산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1980년대 군사학교육은 1970년대에 완성된 1학년은 병(兵) 교육 중심의 훈련, 2학년은 분대장 교육 중심의 훈련, 3학년은 유격훈련과 소대 전술훈련, 4학년은 공수훈련과 소대장 지휘 실습을 이수하는 군사학 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1987년에서 1989년까지 하기 훈련 기간 중 1학년 생도는 약 4주 동안 병 생활 체험훈련을 하였는데, 이것의 목적은 장차 장교로서 이들을 지휘 통솔하기 위한 경험을 쌓게 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이 훈련으로 화기학, 전술학 훈련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전방 실습 시 현지 사병과의 마찰 등으로 이 제도는 단기간에 종료되었다(육군사관학교 1996, 406).

1990년대 군사학교육은 초급장교로서 임무 수행 능력 배양 및 장차 군사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보다 실질적인 교육으로 군사이론과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군사학교육은 기초군사훈련, 하기 군사훈련, 일반학기 군사학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군사교육은 변화를 거듭하다가 1990년대 들어 1학년은 병 기본 훈련 숙달, 2학년 분대 전투 숙달, 3학년 계병협동 이해, 4학년 병 지도 능력 배양을 학년별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재조정되었다. 이렇듯 군사교육의 내용은 소대장으로서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추가하여 계병협동 작전에 대한 이해까지 확대되었다. 군사이론 교육은 육사 교육이 단순히 임관 즉시 수행하는 초급장교로서 임무 수행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장차 한국군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군사전문가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여 실시되었다(육군사관학교 1996, 587).

2000년대 군사학교육은 장교로서 기초 소양과 더불어 ‘군사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소양 및 군사이론 습득’을 목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군사훈련 시 기존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에서 탈피하여 군사훈련과 인성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기간 중 육사 생도들의 군사학 교육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생도훈육의 목표는 1990년대 들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갖춘 사관생도 육성’으로 설정하였다. 훈육의 중점은 민주주의 가치관의 확립, 단체적 윤리의식의 고양, 군인정신의 함양에 두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에는 생도 생활에 대한 통제를 되도록 줄이고 자율적인 행동의 규범을 정립하고, 군이 요구하는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시키고자 하였다(육군사관학교 1996, 643).

〈표 3〉 전문직업주의 정착기 군사학교육

연도	목표	주요 내용
1981~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학 연구능력 부여</li> <li>군사지도자로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자질 구비</li> <li>초급장교 임무수행능력 배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소대전술 완성(1981~1982)</li> <li>분대전투 완성 및 소대전투 숙달(1983)</li> </ul>
1985~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대장 임무수행 능력 배양</li> <li>초급장교로서 필요한 기초 훈련 숙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학년: 병 체험 4주</li> <li>2학년: 분대장 교관화 교육 및 분대장 실습 2주</li> <li>4학년: 전방실습 변경 - 졸업전 3주(1988)에서 하휴간 2주(1989~)로 변경</li> </ul>
1990~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급지휘자 임무수행능력 배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학년 교관화 교육 관계로 학년별 훈련 조정</li> <li>2학년: 유격훈련    3학년: 공수훈련</li> </ul>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전문가로의 성장에 필요한 자질 구비</li> </ul>	
1995		
1996~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장교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년별 훈련목표 재조정</li> <li>1학년: 병 기본훈련 완성</li> <li>2학년: 분대전투 숙달</li> <li>3학년: 체병협동 이해</li> <li>4학년: 병 지도능력 배양</li> </ul>
2000~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급장교로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초군사지식 습득 및 지휘통솔능력 배양</li> <li>군사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소양 및 군사이론 습득</li> </ul>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전에 즉응할 수 있는 기초 군사지식 부여</li> <li>장차 군사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자질 배양</li> </ul>	

\* 출처: 육군사관학교 1996, 591; 육군사관학교 2006, 51

2000년대 들어 우리 군의 국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군과의 연합작전 능력구비를 위한 영어 회화교육과 군의 과학화와 정보화에 따라 전산교육이 강화되었다. 체육교육은 기존의 스포츠 중심에서 벗어나 체력단련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 밖에도 지식 정보화시대의 안보 상황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육사 교육제도의 혁신을 추진하여 과다한 공통 필수 과목을 장교 핵심역량 과목, 기초 학문 과정 등으로 최소화하였다. 또한 야전에서 전투형 강군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야전 감각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4학년 생도는 주도성 강화를 강조한 소대장 완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육군사관학교 2016a, 15-18).

### 3) 평가

1980년대 이후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교육과목을 신설하고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여생도의 입교에 따라 다양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내무생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1) 군사전문성

1980년대 이후 육사의 사관생도 양성교육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여 변화를 지속하였다. 여러 차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성교육의 핵심은 초급장교로서 야전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장차 군사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 있었다. 특히, 전산 및 영어집중 교육 등을 통해 세계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 (2) 책임성

1982년 11월부터 이전의 국가 하강식을 ‘국기 게양식’으로 변경하여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는 의식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부터 육사의 전 간부가 생도 훈육에 동참함으로써 통합훈육을 통해 ‘인성과 군성(軍性)이 함양된 사관생도를 훈육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올바른 국가관, 품성, 정신력, 지적 능력, 그리고 지도력을 갖춘 사관생도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탈냉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의 품성 계발과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군 조직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세를 습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리더십센터를 운영하여 내무생활에 필요한 제도 및 체계를 개발하고, 리더로서 자질과 특성을 연구하여 생도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생도들은 변화된 병영환경에서 초급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 (3) 단체성

1990년대 이후 육사 생도 생활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1998년 여생도의 입교였다. 이에 따라 여생도들의 내무생활 및 군인 기본자세 정립 등과 관련하여 규정들을 제·개정하였다. 이후 이성 교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훈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였다.

육사는 전통적으로 생도들이 자체적으로 화랑의식, 명예의식, 재구의식, 태릉



탕의식 등 각종 의식을 통해 육사인(陸士人)으로서 추구해야 할 정신적 목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육사 생도들이 육사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육사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IV. 결론 및 함의

육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양성교육 과정은 해방 이후 국방경비사관학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동안 육사는 육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장교들을 양성함으로써 명실공히 안보의 산실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비록 일부 장교들의 일탈로 2차례에 걸쳐 군에 의한 정치개입이 있었으나 대부분 장교는 전후방에서 맡은 소임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명을 완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방경비사관학교 시기부터 현재까지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양성과정의 변천 과정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새뮤얼 헌팅턴의 전문직업주의화 요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전문직업주의화 도입기(1946~1950)에는 전문직업주의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육군의 정규사관학교로서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의 발발로 이러한 노력이 중단됨으로써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둘째, 전문직업주의화 태동기(1951~1960)에는 6·25전쟁 중에 정규 4년제 육군사관학교로 재개교함으로써 비로소 전문직업주의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비록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나, 초급 지휘관으로서 군사전문성과 군의 간성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양성교육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전문직업주의화 발전기(1961~1980)에는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과 베트남전쟁 참전 등으로 육사 졸업생들은 실전에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이들의 경험 요소들은 육사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육사 졸업생들이 보여준 희생정신과 위국헌신은 사관생도들의 국가관, 사생관 확립에 귀감이 되었다. 넷째, 전문직업주의화 정착기(1981~현재)에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교육과목을 신설하고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여생도의 입교에 따라 다양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내무생활이 초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육군사관학교의 양성과정은 단순히 장교양성에서 벗

어나 점차 전문직업주의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변천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군전문직업주의화를 위한 사관생도 양성과정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명확한 목표설정 없이 단기간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프로그램 도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즉, 초급지휘자로서 군사전문성과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는 군인으로서 사명감, 그리고 상명하복의 위계가 선 군대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선후배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내무생활 과정에서 상급생에 의한 '군인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음성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갈등과 불신을 낳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도 자치제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적제재 등의 음성적인 '군인화' 과정 및 '사조직' 형성 등의 부정적인 요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육군의 최고 장교양성 교육기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바탕이 된 육사인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동질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군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최근 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군 복무기간 단축, 군에 대한 처우 미흡 등으로 사관학교를 포함한 군 간부 모집 시 지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군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양성과정을 새뮤얼 헌팅턴의 군전문직업주의화 요소를 활용해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광범위한 내용과 군 부대 특성상 제한된 자료로 인해 공간사에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거나 누락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해군·공군사관학교 사례와 비교·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각 사관학교의 양성교육이 군의 전문직업주의화에 미친 영향을 더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차 사료

- 육군사관학교. 2016b.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cademy." 『육군사관학교 역사 자료집(II)』. 서울: 육군사관학교.
- \_\_\_\_\_. 2016b. Academic Instructors for KMA." 『육군사관학교 역사자료집(II)』. 서울: 육군사관학교.
- \_\_\_\_\_. 2016b. "Letter from, KMA to Supt, USMA." 『육군사관학교 역사자료집(II)』. 서울: 육군사관학교.
- \_\_\_\_\_. 2016b. "Cadet Military Training Program." 『육군사관학교 역사자료집(II)』. 서울: 육군사관학교.

### 국문논문, 단행본 및 법령

- 국방군사연구소. 1998. 『건군50년사』.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 국방부. 196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_\_\_\_\_. 1984. 『국방사』 제1집. 서울: 국방부.
- \_\_\_\_\_. 1987. 『국방사』 제2집. 서울: 국방부.
- \_\_\_\_\_. 1990. 『국방사』 제3집. 서울: 국방부.
- \_\_\_\_\_. 1997a. 『국방부사 1992~1994』. 서울 : 국방부.
- \_\_\_\_\_. 2002. 『국방사』 제4집. 서울: 국방부.
- \_\_\_\_\_. 2011. 『국방사』 제5집. 서울: 국방부.
- \_\_\_\_\_. 2021. 『국방사』 제6집. 서울: 국방부.
- \_\_\_\_\_. 1997b. "국방부훈령 제560호" 「국방부교육훈련훈령」. 서울: 국방부.
- \_\_\_\_\_. 1998. "국방부훈령" 제600호 「국군병영생활규정」. 서울: 국방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국방부사』 제5집.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_\_\_\_\_. 2020a. 『한국군 전력증강사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_\_\_\_\_. 2020b. 『국방 100년의 역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김상호. 2006. "경찰 전문직업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경찰연구』 5(2), 3-30.
- 김인국·최광표. 2012. "장교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 방안." *Defense Weekly*

1410, 1-8.

- 김준봉. 1998. “한국 육군의 직업주의 성향 결정요인.”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9(1), 151-185.
- 남정옥. 2015. 『벤플리트 대한민국의 영원한 동반자』 서울: 백년동안.
- 노진철. 2017. “육군 장교양성 체계 발전방향.” 『군사발전연구』 11(2), 163-185.
- 백종천. 1981. “군대교육과 국가발전: 한국의 경우.” 『한국정치학회보』 15, 187-209.
- 볼프 슈나이더, 박종대 역. 2015. 『군인』. 서울: 열린책들.
- 새뮤얼 헌팅턴, 강영구·송태균 역. 1997. 『군인과 국가』. 서울: 병학사.
- 양병기. 1996. “한국 군부의 직업주의에 대한 재검토: 신직업주의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논총』 36(1), 267-287.
- 양혜정. 1994. “한국의 군사교육 체계 발전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육군교육사령부. 1984. 『교육훈련·전투발전종합사』. 대전: 육군교육사령부.
- 육군본부. 1960. 『육군사』. 제2권. 서울: 육군본부.
- \_\_\_\_\_. 1966. 『육군사』. 제8권. 서울: 육군본부.
- \_\_\_\_\_. 1980. 『창군전사』. 서울: 육군본부.
- \_\_\_\_\_. 1989. 『육군40년발전사』. 계룡: 육군본부.
- \_\_\_\_\_. 2001. 『위대한 장군 벤플리트』. 계룡: 육군본부.
- \_\_\_\_\_. 2020. 『육군교육사령부변천사(1951~2019)』. 계룡: 육군본부.
- 육군사관학교. 1978. 『육군사관학교 30년사』. 서울: 육군사관학교.
- \_\_\_\_\_. 1996.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서울: 육군사관학교.
- \_\_\_\_\_. 2006. 『육군사관학교 60년사』. 서울: 육군사관학교.
- \_\_\_\_\_. 2016a. 『육군사관학교 역사자료집(I)』. 서울: 육군사관학교.
- \_\_\_\_\_. 2016b. 『육군사관학교 역사자료집(II)』. 서울: 육군사관학교.
- 이동희. 1982. 『오! 화랑대』. 서울: 대학문화사.
- 장창국. 1984. 『육사졸업생』. 서울: 중앙일보사.
- 조영진. 2003. “장교 양성체계 발전 방향.” 『국방정책연구』 61, 113-143.
- 한용원. 1993. 『한국의 군부정치』. 서울: 대왕사.

#### 영문 단행본

Janowitz, Morris. 1960. *The Professional Soldier*, New York: The Free Press.

Moskos, C. Charles ed. 1971. *Public Opinion and the Military Establishment*.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

Study Group for the Review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Officers,  
DACS - OTERG. 1987. *A Review of Education and Training Officers*.  
Washington D.C.: Headquarter Department of Army.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Training Program in  
Korea Military Academy(KMA)  
: Focusing on the Professionalization of  
Samuel P. Huntington**

Jung Joon Choi ■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This study firstly identified the key subjects and contents of education of the Korea Military Academy(KMA) from 1946 to the present and analyzed by applying the elements of Samuel P. Huntington's military professionalization. The training process for cadets of the KMA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First, the introduction period of professionalization(1946-1950) continued its efforts to train elite officers as a regular Military Academy despite poor conditions for professionalization. However, due to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se efforts were stopped and did not bear fruit. Second, the beginning of professionalization(1951-1960) was the first step toward professionalization when the regular four-year Military Academy was reopened during the Korean War. Although it began by imitating the system of the U.S. Military Academy(USMA), an educational system for military schools with military expertise as a beginner commander and national guardianship began to be established. Third, in the period of professionalization development (1961-1980), due to North Korea's frequent armed provocations and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graduates of the military history ha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war, and their experience factors were reflected in the military history curriculum. The spirit of sacrifice and patriotism shown by the graduates of the KMA served as an example for the cadets to establish a view of the state and life. Fourth, in the period of

settlement(1981-present),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were implemented to establish new education courses to keep pace with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ternationalization, and information age. As such, it can be seen that the training process of the KMA has gradually changed from simply training officers to systematic education for professionaliz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future research, it will be possible to more clearly see the impact of each military academy's education on professionaliz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raining education system of Naval and Air Force academies.

Key Words: Professionalization, Korea Military Academy(KMA),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USMA), Korean War, Vietnam War

